

전남도,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상향' 기대

전남도, 2년간 규제완화 건의... 국토부, 올 상반기 시행령 개정 추진 최대 37만평 건축부지 확보... 농공단지 입주 기업 운영 여건 개선 기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전남도내 농공단지 내 건축 물량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남도가 70%에 불과한 농공단지 건폐율의 10% 상향을 지난 2년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부가 조만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전남도내 농공단지는 70개소 1217만 8000㎡로, 건폐율이 올라갈 경우 최대 37만평의 새로운 건축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합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전남도는 두 차례 행정안전부와 함께 현장감담회를 열어 규제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전상정과, 3차례 심의 대응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규제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농공단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전국 484개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에선 70개 농공단지에 1570개 기업이 입주해 1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서규정 전남도농공단지협의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공장 증설이나 부속 건물 설립 여건이 개선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운영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전남도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규제 개선이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경제 활동과 민생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장애인 자립·돌봄 지원에 1800억 확보

전년비 142억원 ↑ ... 역대 최대

전남도가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으로 1800억 원을 확보, 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42억원 증액(8.6%)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불편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현재 전남에서는 5700여명의 활동지원사가 6500여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하며 사회 참여를 돕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하는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만6150원에서 1만6620원으로 2.9% 인상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비 지원 외에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등급에 따라 월 최대 458시간까지 전남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며, 취약계층과 위기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은 2026년 11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나 천재지변, 감염병 환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더욱 폭넓은 돌봄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을 바라는 등록장애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아름다운 건축문화 확산 나선다

5월 1일부터 우수건축물 공모

전남도가 아름다운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 및 선정계획'을 공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한다. 전남도는 접수 전까지 약 3개월간 도민과 관계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2년 첫 공모를 시작으로 지역 민간건축물 발

굴에 힘쓴 전남도는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까지 포함해 공모 대상을 확대,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공공부문 각 5개 내외의 작품을 시상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건립 시기에 상관없이 전남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건축주(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자 모두가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매일로 접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구의원들 헌혈 캠페인 동참 광주시의원들과 5개 자치구의원들이 3일 시의회 앞에서 동절기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전쟁·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 다룬다

5월 15~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제회의 주관단체 14일까지 공모

광주시가 '전쟁·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연다. 개최 시기는 기존 10월에서 5·18기념주년을 포함한 5월로 앞당겼다.

광주시는 "오는 5월 15~17일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20년부터 6년 연속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와 공동주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제협력을 이어가

고 있으며, 인권도시의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 인권행사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로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 국가폭력 및 인권탄압 등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평화와 갖는 적극적인 의미를 탐색하고 모든 반평화적 상황에 맞서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도시간 연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부터 5·18기념주장과 맞물려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고,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개최 시기를 10월에서 5월로 옮겼다.

광주시는 포럼 개최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회의를 주관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주제회의는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포럼의 주제와 관련한 인권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신청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www.whrcf.org)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무국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세계인권도시포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광주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최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 유일의 국제인권포럼"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전쟁과 폭력의 종식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일 경험 쌓으세요"...광주시, 드림청년 모집

19~29세 미취업청년 19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올해 상반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제17기 드림청년' 42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지역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직무역량 강화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청년 일자리사업이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72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19~39세(1985년 3월2일~2006년

3월1일 출생)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청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자기주도형(주 25시간 5개월)과 집중참여형(주 40시간 3개월) 등 2개 유형으로 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또는 주 40시간씩 3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월 167여만~27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신청자 중 은둔형외톨이,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진출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광주시는 청년과 사업장의 일경험 연계를 위해 17기 드림터(참여 사업장)로 한국전력거래소, 광

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 ㈜해양에너지, ㈜무등기업 등 광주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310곳을 모집했다. 참여드림터에 대한 정보와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1차 면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면접 신청한 청년은 17~19일 사흘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드림만남의 날'에 하루 이상 참여해 드림터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19일 밤 9시까지 2차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26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광주청년일경험드림, 광주시 누리집에 각각 게시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